HANNAH CHOI MINISTRIES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

우리는 살면서 자신을 바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서 위로나 힘을 발견하지 못할 때 실망, 초조, 불안으로 자아가 위축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나 라는 자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집중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관리자의 위치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 하나님께 집중이 아닌 자아 욕구에의 집중으로 타락하게 하였습니다. 범법한 사람들의 범죄 형태는 다를지라도 범죄의 저변에는 공통된 한가지 '내 집중 또는 내 욕망'을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내 집중이 강할수록 반대로 이웃을 고려해 줄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이 목사님은 교인들 상대의 월요 성경공부에서 '기독교인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야 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타락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두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품과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저는 2019년 1월 새해 첫 주일 설교를 전도서 12장 13,14절"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 하시리라" 로 성경 본문을 삼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사는 동안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필요에만 안주하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악과 타협하려고 할 때 우리의 본분을 지키게 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계명은 "1.하나님을 사랑하고 2. 이웃을 사랑하라" 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영어 표현을 보면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마22:37)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마22:39) 여기에서 37절에 나오는 'All' 이라는 단어에 주목해보면 우리의 모든 중심, 모든 정신(생각), 모든 마음을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자신에게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중심과 포커스(집중)가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될 때 첫번째 계명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헌신적인 능력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어진 우리 영혼의 분명한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의 필요가 느껴지고, 보이고, 마음이 움직여서 나 자신의 필요처럼 이웃의 필요를 채우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에는 많습니다. 저 역시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났다. 그런 분들은 교회의 직책과 상관없고 부유하지 않았지만 선한 양심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 온 하나님의 사람(Man and Woman of God)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되고 역사되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알의 사랑의 밀알로 성장해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소원이십니다.

www.hannahchoi.org

Don Enrique Road
Antipolo, Rizal, Philippines

+82-10-6895-5411
+63-939-915-9665